

목포시, 항구축제 청년 참여 강화 글로벌 '파시' 재현

11일부터 13일까지 삼학도 일원 2060파시즌 등 세대별 구역 운영 항구 버스킹 1970년대 추억 선사 '목포 미식페스타' 부대행사 편성



2024 목포항구축제가 11일부터 13일 까지 3일간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통 파시를 재연하고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 선보일 방침이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로 18회를 맞는 목포항구축제는 2024~2025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오감만족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항구축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축제의 주요 주제로 선정해 목포항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낼

이로써 목포항의 번영과 만선을 기원하고, 항구에서 시작되는 목포의 밝은 미래를 제시할 전망이다. 전통 파시를 더욱 돋보이도록 구성된 올해 축제는 목포항을 따라 세대별로 파시즌(2060), 항구존(7080), 청년존, 현대존 등 4개 공간으로 나눠 진행되며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글로벌 파시'를 연출하게 된다. 파시즌에서는 전통 파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파시 장터에서 경매받은 수산물을 직접 구워 먹는 구이터와 어물전 수라간 등이 운영된다. 이 공간은 목포항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항구존은 목포의 근대역사와 1970~1980년대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항구 버스킹, 항구도야호(건택체험), 청년창업부스 및 음식부스로 꾸며진다. 현대존과 청년존에서는 낭만한끼, 청

년항구불, 체험부스, 선창어린이놀이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해 목포항의 낭만과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제철 수산물을 목포만의 맛과 멋으로 즐길 수 있도록 목포 미식페스타가 부대 행사로 진행되며 '품격있는 밥상', '3인 3색 스페셜 쿡' 등 입맛을 돋우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2024 목포항구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공연 △바다콘서트 △목포항 구음악회 △난영가요제가 축제 기간 중 오후8시부터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파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본래 취지는 부각시키면서 차별화된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젊은 항구도시의 이미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 주민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목포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2회(매월 둘째주·넷째주 금요일)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동 상담실은 복지 정보에 취약하고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이동 상담실은 지금까지 총 437건의 상담 및 서비스가 이뤄졌고 지난 9월까지 392건을 지원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동 상담실은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각 가구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자원을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도 이동 상담실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진도 군민 행복 아카데미' 개최 15일, 김용택 시인 초청 강연

진도군은 올해 여섯 번째 '진도 군민 행복 아카데미' 강연을 오는 15일 오후 2시 진도군청 대회의실(2층)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10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을 초청했다.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적다'라는 주제로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삶에 대한 배움과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김용택 시인의 주요 저서는 '섬진강', '누이야 날이 저문다',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등이 있으며 운동주 문학대상과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군민 행복 아카데미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며 "오색찬란 단풍의 계절 10월, 아카데미 강연에 참석하셔서 풍성한 마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목포시, 시민 중국어 무료 강좌 11월22일까지 총20회 진행

목포시는 지난 7일 목포벤처·문화지원센터에서 '제23회 시민 중국어 무료 강좌'를 개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 중국어 강좌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강좌로 시민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민 35명이 참여한 이번 강좌는 오는 11월 22일까지 매주 월·수·금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원어민 강사가 중국어 기초 발음과 상황별 회화 및 중국의 문화 등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은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다. 많은 시민들이 외국어 실력을 키우고 목포를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관계자가 지역사회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체조, 토탈공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지역 중심 '함께 만드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이 지역사회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체기능 평가와 스트레칭으로 참가자의

신체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가능 유무를 판단해 인지재활, 자가운동교육, 도자기체험, 낙상예방교육, 음악체조, 토탈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김성철 보건소장은 "이번 재활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사회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3주년 기념 '갯벌 사진전' 개최

사계절 사진 20여 점 전시

신안군은 '신안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해 신안갯벌을 담은 사진전을 오는 18일까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는 항공사진으로 신안갯벌의 사계절을 담은 우수한 경관 20여 점을 전시한다.

신안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장장일치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 중



신안군이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해 18일까지 사진전을 연다. 신안군 제공

관찰되며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모래-자갈 선형체'라는 특이퇴적체가 발달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앞장선 신안갯벌은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에 대해 꾸준히 기록해 나가면서 우수한 경관과 자연자산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07년부터 세계유산 등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철새와 서식 보전을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 11월, 제13회 신안 국제철새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구직자 모집

무안군은 오는 30일 목포대학교 남악 캠퍼스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내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24년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비상하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도, 무안군이 주최하고 전남인력개발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체·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다양한 직종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박람회에는 무안군 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다양한 분야의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풍성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접 구직이 가능한 15여 개의 채용관과 함께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컨설팅관, 입사지원서 컨설팅, 취업·진로상담, 이력서용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력서 사진관 등 각종 부대행사관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남 일자리통합정보망에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2024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지역 내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무안군 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